

지방자치·종합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문화교육특구 조성 최우선”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남구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모든 구성 운영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어서 ‘행복한 남구’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최영호(45) 남구청장은 “남구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구민의 부름을 받아 구청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광주 서남부권의 중심에 있는 남구는 현재 재정 적자가 27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남구는 교육

전망 구축, 노인 서비스 확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등 20여가지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최 청장은 ‘사람중심 건강남구’라는 구정 슬로건을 내세우고, “모든 투자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 청장은 문화, 교육, 일자리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건강남구’에는 다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우선 ‘건강함’에는 그동안 남구청에서 발생했던 각종 행정상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아울러 정치적인 갈등과 반목을 줄여나감으로써 ‘건강한 남구’를 건설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또 최 청장은 남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광주시에 재정보조금을 받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남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 청장은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이나 재정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청장은 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위한 ‘개방형 감사관제’는 그 초석이다. 도입 시기에 대해 최 청장은 “8월 개 구청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조직개편과 함께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사진=남구청기자 mjna

친환경농업 지원·어린이도서관 추진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투명 행정 운영

환경이 우수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도 인접해 있어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대촌·효덕·송암동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3대 남구의원, 4대 광주시의원 등 10년 간의 지방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이 된 최 청장은 민선 5기의 새로운 구정 슬로건을 ‘사람중심 건강남구’로 설정하고, 남구만의 특성을 살린 ‘행복한 남구 건설’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 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특권한 지역경제 육성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녹색도시 남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남구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최 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사직공원 일대 문화투자진흥지구 지정, 구도심과 신도심간 격차 해소, 친환경농업 적극 지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센터와 ‘북 스타트 센터(Book Start Center)’ 연계, 등·하교 안전망 구축,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건강·휴식공간 확충, 건강·안전도시 조성, 복지대상자 맞춤형 사회안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센터와 ‘북 스타트 센터(Book Start Center)’ 연계, 등·하교 안전망 구축,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건강·휴식공간 확충, 건강·안전도시 조성, 복지대상자 맞춤형 사회안

“관광개발사업 대출 기준 완화해 달라”

전남도, 정부에 건의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감독·검사가 강화되면서 도내 관광투자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남도가 8일 정부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관광투자분야 PF

대출 건의서’에서 “지난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실태 및 감독 강화 발표 이후 관광 분야 투자 감퇴가 심해져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의 해양 관광 자원이 많아 투자가 유리한 여건에도 PF 자금조달 곤란으로 인해 투자 미실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

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PF 대출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숙박, 리조트 등 관광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한 PF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다른 분야의 PF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줄 것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선 5기 화두는 ‘청렴·자정·개혁’

무안·여수, 취임식 대신 청렴 서약·자정결의대회 완도, 원스트라이아웃...전남도, 감사관 외부 영입

민선 5기 출범 이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청렴’을 화두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임 단체장들이 비리에 휘둘러 구속되거나 도주하는 등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자정 결의대회’나 ‘청렴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강도높은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공복상을 세우기 위한 자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은 지난 1일 서삼석 군수 취임식 대신 군청 광장에서 전 공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및 친절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관행을 방자한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공직자 품위를 지키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로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군민 복지증진에 힘을 쓴다는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임 오현섭 시장이 수리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으며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처리된 여수시장의 취임식도 자정결의대회로 치러졌다.

김충석 신임 시장은 “여수는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고, 시민들의 사기는 떨어졌다”면서 “저부터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이니 200여명 직원들도 청렴한 공직자가 돼달라”며 ‘청렴에 청렴’을 거듭 강조했다.

말모만 강조하는 게 아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높은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를 ‘부패척결 원년’으로 정하고 직원이 부정과 비리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면 반드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아웃제’를 도입했다.

원스트라이아웃제는 말 그대로 단 한 건의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최근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을 갖고 ‘부정·비리 원스트라이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부패척결에 힘쓰기로 했다. 김충석(왼쪽에서 세번째) 군수 등이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신고금액의 20배를 지급하는 등 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내년 6월말까지는 외부 감사관 영입이 유예된 상황으로,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일찍 외부 감사관이 영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주시 남구청도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해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은 지자체의 청렴과 개혁 바람과 관련, “일회성 또는 전시행정 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 사회 전반의 환탁한 분위기를 자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인 100명중 3명 “한번쯤 자살 시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15%는 자살 고민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의 3대 사망 원인에 자살이 포함됐으며, 우리나라 성인 15.2%는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이 18.7명으로 뇌혈관질환(58.3명), 허혈성 심장질환(23.6명)에 이어 가장 높았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교통사고(7.7명), 위암(14.6명), 폐암(15.8명), 고혈압성 질환(12.7명)보다 커서 여성의 자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청소년은 이성 및 성

적에 대한 스트레스, 성인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압박, 중년은 결혼 후 육아와 직장 생활에 이종고, 노인은 노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자살은 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의 4대 사망 원인에 속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4명으로 뇌혈관 질환(54.7명), 폐암(44.0명), 간암(34.4명)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 15.2%는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조맹태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전호진 교수팀은 전국 12개 우울증센터에서 일부 우울증환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 남녀 6천 51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실태 역



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일 밝혔다.

성별로는 자살 계획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50% 정도 높았다.

고속단정 전복 사고 관련

현직 대령 2명 보직 해임

지난 3일 충남 태안 모항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사고로 현직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이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 부대장인 김모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보직 해임을 당한 이 대령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후배인 김 대령에게 사고 고속단정의 사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company information.

금당 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상무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property listings.